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10.

몰도바 ICT 환경 분석

■ 김나연*·장윤정**

1. 개요

몰도바 공화국(Republic of Moldova)은 동유럽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 약 354만명의 작은 내륙국이다. 1991년 구 소련 붕괴이후, 몰도바 공화국은 신생 독립국으로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을 대외정책으로 하고 있다.

몰도바는 1992년부터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었으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14개 신북방 대상국가) 중 하나로, 동유럽 교차로에 위치하여 향후 유럽 및 CIS 지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이 가능한 국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몰도바는 유럽, 러시아, CIS 국가, 터키 등과 FTA 협정을 체결하여 이들 국가들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EU는 몰도바와 에너지,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유럽, 중앙아시아, 흑해 국가 간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다. IMF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몰도바 GDP는 1,168달러로 세계 136위에 머물고 있고 몰도바 동부의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으로 인한 정세불안 등의 위험요소가 있으나, 몰도바 정부의 EU로의 통합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시장경제 지향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 전문원, (043)531-4223, nykim@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 연구원, (043)531-4323, yj0808@kisdi.re.kr

1)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동북3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림 1] 몰도바 지도



자료: Lonely Planet 웹사이트

세계은행(WB)에서 매년 발간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 보고서(Doing Business)”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몰도바는 190개 조사대상국 중 48위로, 4년 전인 2016년 52위와 비교하여 점진적인 향상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몰도바는 141개 조사대상국 중 86위로 선정되었으며 이 역시 전차년도들 대비 상승 중에 있다.

몰도바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국가 중장기 전략인 “몰도바 2020(Moldova 2020)”과 함께, ICT부문 역시 2013년부터 “디지털 몰도바 2020(Digital Moldova 2020)” 등 주요 ICT 발전정책을 발표 및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EU시장으로의 통합을 위해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시장체제를 지향하고 있어 동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ITU 등에서의 주요 ICT발전지수를 통한 몰도바의 ICT 발전 현황을 파악

및 몰도바의 주요 ICT 정책을 살펴보면, Fitch Solutions(2020)에서 발행된 『Moldova Telecommunications Report: Included 10-year forecast to 2028』 및 Budde Comm(2019)의 『Telecoms, Mobile and Broadband - Statistics and Analyses』 분석을 통한 현/향후 몰도바 내 시장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몰도바 ICT 현황분석

1) 몰도바 ICT 발전현황

201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를 살펴보면²⁾, 몰도바는 176개 조사대상국 중 59위(통합지수 6.4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6년 63위에서 4단계 올라간 순위로 전 세계평균 점수인 5.11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특히 IDI의 3개 세부 지표(접근성, 이용도, 이용능력) 중 접근성(Access)의 경우 42위(7.56)로 세계 평균인 5.59에서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다른 지표인 이용도(Use) 및 이용능력(Skills)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몰도바 주요 IDI 지표(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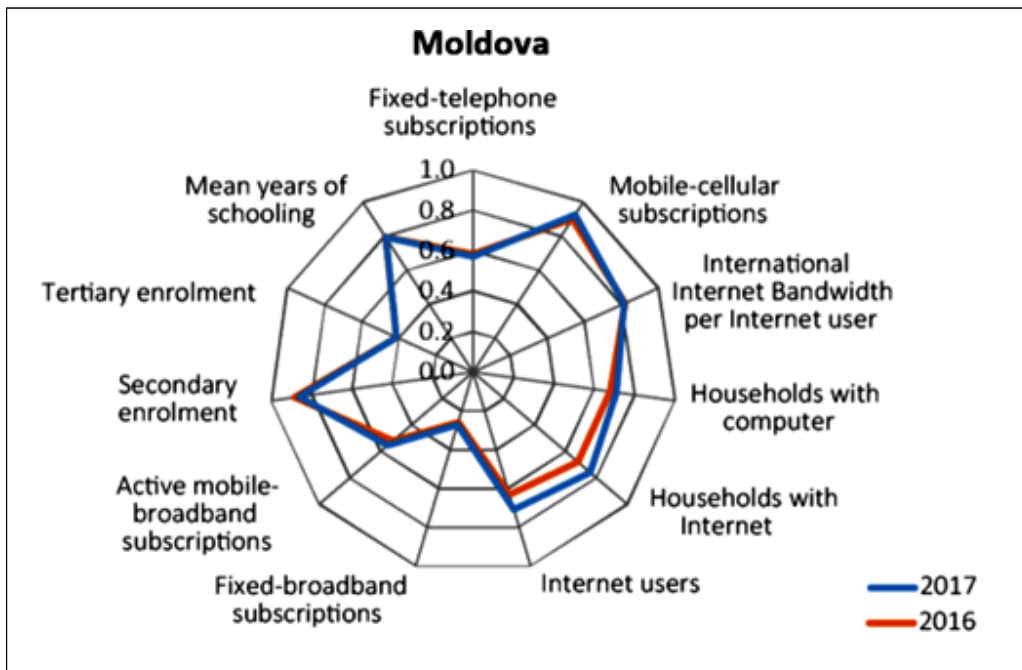
구분	통합	세부지표		
		접근성(Access)	이용도(Use)	이용능력(Skills)
몰도바	6.45 (59위)	7.56 (42위)	5.12 (70위)	6.89 (68위)
전 세계평균 (176개국)	5.11	5.59	4.26	5.85
한국	8.85 (2위)	8.85 (7위)	8.71 (4위)	9.15 (2위)

자료: ITU(2017)

2) 2017년 이후 IDI 평가요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2017년 ITU IDI 보고서가 가장 최근 자료임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접근성 지표의 경우, [그림2]과 같이, 전차년도인 2016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특히 ‘인터넷 사용자(Internet users)’ 및 ‘인터넷 사용가구(Households with internet)’에서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선전화회선수(fixed-telephone subscriptions)’ 및 ‘유선 인터넷 가입건수(fixed-broadband subscriptions)’와 더불어 이용능력과 관계있는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tertiary enrolment)’에서는 큰 향상의 변화가 없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몰도바 IDI 2016-2017 비교



자료: ITU(2017)

한편 몰도바가 속한 CIS 지역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도 CIS 국가들 중에서도 벨라루스(7.55/ 32위), 러시아(7.07/ 45위), 카자흐스탄(6.79/ 52위)에 이어 4위를 차지할 만큼 지역 내에서도 ICT 발전이 상위 수준에 올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CIS 지역 ITU IDI 비교(201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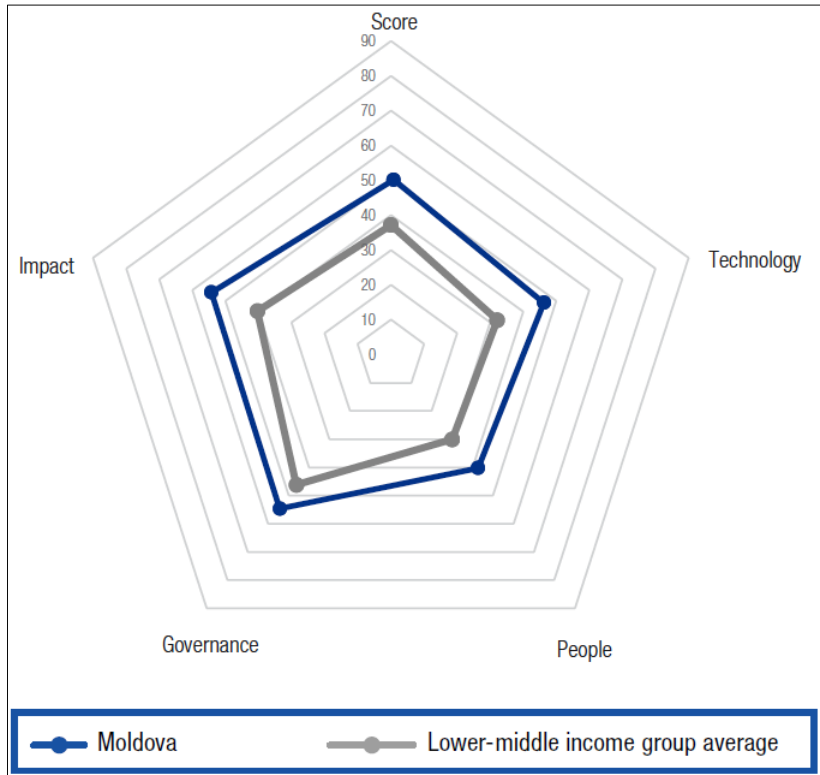
순위	국가	IDI 지수	순위
1	벨라루스	7.55	32
2	러시아	7.07	45
3	카자흐스탄	6.79	52
4	몰도바	6.45	59
5	아제르바이잔	6.20	65
6	조지아	5.79	74
7	아르메니아	5.76	75
8	우크라이나	5.62	79
9	우즈베키스탄	4.90	95
10	키르기스스탄	4.37	109

자료: ITU(2017)

또한, Portulans Institute(PI)에서 발표한 2019 네트워크준비지수(Network Readiness Index, NRI) 순위에 따르면, 몰도바는 121개 조사대상국 중 66위(48.93점)를 기록하였으며,³⁾ NRI의 세부지수에서는 각각 기술(Technology)지수 62위, 사람(People)지수 69위, 거버넌스(Governance)지수 77위, 영향(Impact)지수 56위에 올랐다. 또한 중하위소득국(Lower-middle-income countries) 중 베트남(63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에 위치하여 해당 분류 내 타 국가에 비교해서도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세계평균은 51.64점이며, 한국은 총점 73.84로 17위

[그림 3] 몰도바 네트워크준비지수(NRI)



자료: Portulans Institute (2019)

2) 몰도바 ICT 주요 부처 및 정책

(1) 주요 ICT 부처

현 몰도바 ICT 총괄 부처는 경제인프라부(Ministry of Economy and Infrastructure, MEI)이다. 2017년 7월, 정부개혁 및 예산절감을 위해 중앙정부를 2명의 부총리 및 9명의 장관 체제로 축소 개편하였으며, 이에 기존 몰도바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MICT)가 현 경제인프라부(MEI)에 통합되었다. MEI는 ICT 외 도시화, 에너지, 기업환경, 통상, 산업, 국제경제협력 등을 총괄하고 있다. MEI 내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정

책 추진을 통해 정보사회 및 통신, 정보기술산업, 디지털 경제, 사이버보안, 인터넷 거버넌스 등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MEI 외 전자정보통신기술을 규제하는 전자정보통신기술 국가규제청(ANRCETI), 국가 주파수 관리/감독, 전자기기 인증/승인 등을 담당하는 국가 주파수 관리소(National Service for Radio Frequency Management), 방송 채널 및 방송주파수를 조정하고 콘텐츠 라이선싱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방송위원회(Broadcasting Council)가 존재한다.

〈표 3〉 몰도바 주요 ICT 부처 및 기능

기관	주요 임무
경제인프라부 (The Ministry of Economy and Infrastructure, MEI)	- 2017.7월. 예산절감 및 정부개혁을 위해 중앙정부를 2명의 부총리 및 9명의 장관 체제로 축소 개편, 기존 정보통신부(MICT)가 현 경제인프라부(MEI)에 통합됨 - 전기통신 부문의 정부 정책 및 전략 고안·촉진·실현을 총괄
전자정보통신기술 국가규제청 (National Regulatory Agency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Moldova, ANRCETI)	- 전자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경제활동 규제 및 관리감독 - 전자정보통신기술 사용자 권익보호 - 무선 통신국 허가 - 통신시장 분석 및 관련 데이터 제공
국가 주파수 관리소 (National Service for Radio Frequency Management)	- 무선 주파수 관리 및 국내/국제 주파수 이슈 조정 - 무선 주파수 감독 - 전자기기 인증 및 승인
방송위원회 (Broadcasting Council)	- 방송 채널/주파수 부여 - 콘텐츠 라이선싱 및 모니터링

자료: 저자정리

(2) 주요 ICT 정책

몰도바의 통신시장은 높은 인터넷 접근 속도, 높은 수준의 모바일 서비스 접근성 및 기술 개발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몰도바 ICT 주관청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정보 사회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규제 의 모범 사례를 적용하려 노력 중에 있다.⁴⁾

4) ITU(2017)

○ 디지털 몰도바 2020(The Digital Moldova 2020)

- 2013년 10월, 몰도바 정부는 정보사회발전을 위한 국가 ICT전략인 “디지털 몰도바 2020(Digital Moldova 2020)”를 발표했다. 이는 이전 국가정보사회발전전략인 “e-Moldova 2005” 결과 평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의 최소 개입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정보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3가지 주요 요소인 1) 접근성 및 인프라(access and infrastructure): 네트워크 연결성 및 접근성의 향상, 2) 디지털 콘텐츠 및 전자서비스(digital contents and electronic services):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생산 촉진, 3) 역량 및 활용(capacities and utilization):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활용을 촉진시키는 리더러시 및 디지털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⁵⁾

〈표 4〉 디지털 몰도바 2020 주요내용

구분	내용
목표	정부의 최소개입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정보사회의 발전 달성
주관 부처	몰도바 경제인프라부 (MEI)
중점요소(Pillar) 별 주요 내용	
1) 접근성 및 인프라	- 정보통신인프라의 발전과 모두를 위한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까지 아래 타겟목표를 설정함 1. 시 당국이 있는 모든 지역에 최소 30Mbps 속도 이상의 인터넷 접근성 제공 (최소 한 개 이상의 광 네트워크 구축) 2. 연결 지역의 인터넷 가입자 최저 속도를 2014년 5MPs, 2017년 15MPs, 2020년 30MPs로 목표 3. 전체가구의 최소 60%가 브로드밴드 인터넷에 접근 보장 4. 지역 내 인구 85%가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5. 2013년부터 모든 민간 신축건물(100%)에서 전자통신망 접근 인프라를 갖출 것 6. 도시지역의 신규 고속망 중 80%는 지하에 위치하도록 할 것 7. 전체 인구(100%)에 디지털 지상파 TV에 접근 보장

5) MEI 웹사이트 내용 재정리

구 분	내 용
2. 디지털 콘텐츠 및 전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콘텐츠와 전자서비스는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요소로, 사회와 국가경제에 혜택을 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과 경제 성장의 잠재적 원천이 됨 - ‘디지털 몰도바 2020’ 내 디지털 콘텐츠는 생성, 수집, 관리, 처리, 저장, 배포, 접근, 사용 및 재사용, 폐지의 대상이 되는 전자형식의 모든 정보로 정의됨
3. 역량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 디지털 능력 개발 및 디지털 포용이 주요 목표이며, 일반 교육 시스템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이 중요함을 강조 1. 지식기반 경제의 요구에 맞게 조정된 커리큘럼 2. 교육과정 내 ICT의 효과적 구현 관련 훈련을 받은 교직원 3. 교육과정 내 통합된 정보기술 4. 평생학습지원을 포함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제작

자료: MEI웹사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o 디지털 TV 전환

- 몰도바 정부는 2015년 5월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TV 전환 프로그램(Program for the transition from analogue terrestrial television to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을 승인했으며 동 프로그램은 디지털 TV 전환 이후 TV 프로그램 및 기타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벽촌지역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기존 프로그램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11월 첫 DTT(디지털 지상파 TV)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 5월 부로 아날로그 TV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o 2018-2020 브로드밴드 개발 프로그램 (Broadband Development Program for the years 2018-2020)

- 2018년 7월 승인된 “2018-2020 브로드밴드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광대역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개발 및 모든 시민을 위한 접근성 향상이며, 2020년까지 1) 모든 가구 중 최소 60% 이상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보급률 및 2) 최소 30Mbps 속도 이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각 지역별 광케이블의 최소 1거점 구축을 타겟으로 한다.

3) 몰도바 ICT 시장현황

몰도바 통신 시장은 특히 유선 및 모바일 광대역 부문에서 수년간 건실한 성장을 보여 왔으나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소비자 지출에 대한 제약이 생겨 2016년 이후 통신 수익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2019년 상반기까지 계속되었으며 전체 수익은 5.4% 감소하였다.

유럽연합(EU)에 가입하려는 몰도바의 포부는 정부와 규제 당국이 국가의 통신 부문을 EU원칙 및 표준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7년 7월에는 2009년 유럽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용하기 위해 전자통신법이 개정되었고, 당해 12월에 추가 개정이 채택되었으며 2019년에 추가적인 변경사항들이 제안된 바 있다.

〈표 5〉 몰도바 ICT 시장 현황

구분		2018	2019e	2020f	2021f	2022f	2023f
유선 전화	가입자 수 (천 명)	1,108.2	1,070.5	1,042.7	1,013.5	993.2	970.4
	100명당 가입자 수(명)	27.3	26.5	25.8	25.2	24.7	24.3
이동 전화 (모바일)	가입자 수 (천 명)	3,566.3	3,666.1	3,699.1	3,713.9	3,736.2	3,747.4
	100명당 가입자 수(명)	88.0	90.7	91.7	92.3	93.1	93.7
3G	가입자 수 (천 명)	274.3	251.3	237.9	226.3	214.3	194.6
	모바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7.7	6.9	6.4	6.1	5.7	5.2
4G	가입자 수 (천 명)	2,486.8	2,817.5	3,073.9	3,319.9	3,502.4	3,548.0
	모바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69.7	76.9	83.1	89.4	93.7	94.7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천 명)	864.6	904.2	945.8	998.1	1,045.2	1,088.8
	100명당 가입자 수(명)	21.3	22.4	23.4	24.8	26.0	27.2

e/f: Fitch Solution estimate/fore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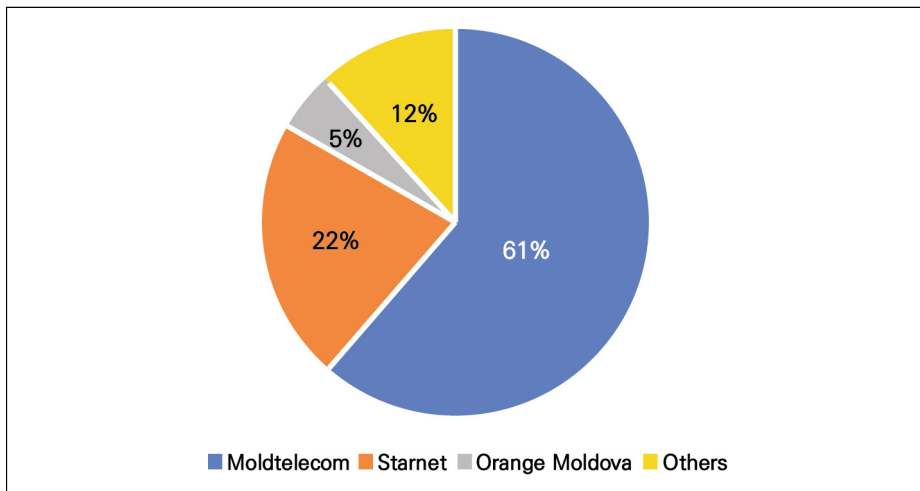
자료: Fitch Solution(2020)

앞의 <표 5>에서는 2023년까지의 몰도바 ICT 시장 현황을 전망한 것으로 유선전화 시장은 2023년까지 가입자 수가 24.3%까지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보여진다. 유선전화 시장과 달리 모바일 통신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에 모바일 시장에서 3G가 차지하는 비중은 6.4%이나, 가입자 수의 감소에 따라 2023년에는 5.2% (가입자 수 약 194만 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면, 모바일 시장에서 4G를 사용하는 가입자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는 83.1%에서 2023년에는 94.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 몰도바 유선통신·브로드밴드 시장 현황

Budde Comm(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현재 시장에서 운영 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는 94개이지만, 지역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주요 ISP는 Moldtelecom과 Starnet으로 특히 Moldtelecom은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ISP이며, Moldtelecom의 경우 가입자 기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인 61.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은 Starnet은 22.1%, Orange Moldova는 5.2%, 그 외 기타 사업자가 1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 몰도바 유선통신 시장 점유율 현황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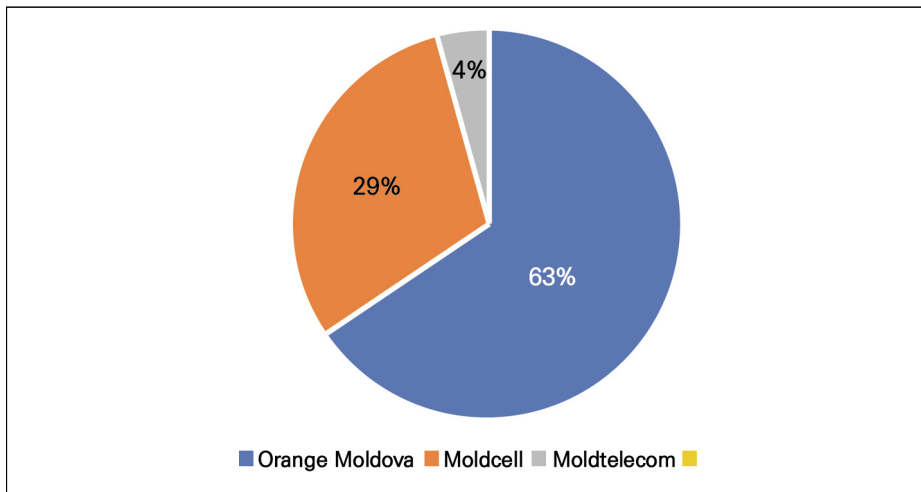


자료: Budde Comm(2019) 바탕으로 재구성

(2) 몰도바 모바일(이동통신) 시장 현황

몰도바 전기통신 시장은 2004년 개방되었다. Fitch Solution 보고서에 따르면, 몰도바의 통신 시장은 세 개의 주요 통신사업자인 Orange Moldova, Moldcell, Moldtelecom이 지배하고 있다. Orange Moldova는 시장 비중으로 살펴보았을 때 65.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Moldcell이 30.2%, 마지막으로 국영기업인 Moldtelecom의 시장 비중은 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 몰도바 모바일(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현황 (2019년 기준)



자료: Budde Comm(2019) 바탕으로 재구성

비록 몰도바 통신시장은 그 규모가 타 국가들에 비해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견고하게 운영되고 있다. 모바일 통신 시장은 현재 포화 상태로 가입자 확보에 중점을 둔 유기적 성장에는 제약이 따르고, 신규 진입자들은 시장에 참여해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으며 낮은 구매력은 이러한 서비스 가격에 자연적인 상한선을 두게 된다. 통신사업자들은 고급 및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유지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2029년까지 가입자 수는 약 4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몰도바 통신 시장에 관한 Fitch Solution의 SWOT 분석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몰도바 통신 시장 SWOT 분석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기관은 경쟁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Moldtelecom 과 경쟁 할 수 있는 많은 대체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발급 • 주요 전략 투자자 Orange, Moldcell 과 같은 회사는 강력한 재정적 지원 및 전문 지식을 제공 • 후불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모바일 혼합가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경쟁으로 인한 모바일 수익의 감소 • 기존 Moldtelecom의 민영화 지연으로 사업자의 유선·모바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 • ARPU(가입자당 평균수익)이 낮고, 경제 침체가 사용량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침
기회(O)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 인프라의 부족은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의미 • 모바일 비음성 서비스를 확장하는 4G 및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확산 • 차세대 IP 기반 서비스는 현재 Moldtelecom에서 제공 • 번호 이동성 향상에 따른 경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시장은 Moldcell과 Orange사에 너무 집중되어 있음 • 몰도바는 많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시장임 • 농촌 지역에 인구 비율이 높음 : 높은 네트워크 구축 비용은 유선·모바일 브로드밴드 커버리지를 제한함

자료: Fitch Solution(2020)

모바일 부문은 몰도바 통신 시장에서 가장 큰 분야로 성장하였고, 3G와 LTE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한 주요 3개의 통신사업자는 프랑스의 Orange SA가 소유하고 있는 Orange Moldova, 스웨덴의 Telia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Moldcell, 그리고 기존 국영 통신사업자인 Moldtelecom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Orange Moldova

Orange Moldova는 몰도바에서 모바일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두 통신사로 2016년에는 케이블 기반 광대역 사업자인 Sun Communications를 인수하여 초기 통합서비스 시장으로 확대하였다. 프랑스에 기반을 둔 Orange SA가 94.5%를 소유하고 있으며, Orange는 3G 기술로 2G GSM 네트워크를 빠르게 대체하였고, 최근에는 97%의 인구를 포함하여 4G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을 나타내고 있다.

Orange Moldova는 경쟁 업체인 Moldcell에 이어 조금 늦게 4G 시장에 진입했으나, 모회사 Orange의 전문 지식과 재원을 활용하여 전국의 네트워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Orange Moldova의 SWOT 분석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Orange Moldova SWOT 분석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중 55%의 모바일 가입자를 보유한 최대모바일 사업자임 • 모바일 브로드밴드가입 비율이 가장 높음 • 모바일 ARPU가 시장에서 가장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경쟁과 국제 로밍 및 착신접속료를 감소로 인해 모바일 ARPU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가입자 기반은 주로 선불임
기회(O)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 음성 및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라이선스가 부여됨 • 제한된 유선 인프라는 모바일 브로드밴드광대역에 큰 잠재력을 제공함 • Orange의 국제 노하우는 몰도바에서 '스마트'오피(예: 스마트 홈, 스마트 농업 등)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VNO 라이선스가 계획되어 있음 • 경쟁 업체인 Moldcell과 Unite의 4G 및 3G 서비스 출시로 인해 경쟁이 더욱 심화됨

자료: Fitch Solution(2020)

② Moldcell

Moldcell은 몰도바에서 두 번째로 큰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로 전국의 2G, 3G 및 4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스웨덴의 Telia가 터키의 Turkcell의 지분 41.5%를 모두 인수하여 100%의 지분을 모두 확보하였다.

Moldcell 사업자는 주요 경쟁상대인 Orange Moldova보다 먼저 몰도바 내 최초의 4G 상용 네트워크를 시작하였다. Moldcell의 경우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매출 성장을 위해 데이터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표 8〉 Moldcell SWOT 분석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36 %의 시장 점유율로 두 번째로 큰 이동 통신 사업자임 • Moldcell 고객의 약 30 %가 후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 통신사인 Orange보다 ARPU가 훨씬 낮고, 유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부재함
기회(O)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호 이동성의 도입으로 모바일 고객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네트워크를 전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기관이 향후 MVNO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음 • 모바일 데이터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시장 부문의 마진이 저하될 수 있음

자료: Fitch Solution(2020)

③ Moldtelecom

국영기업인 Moldtelecom은 몰도바의 기존 전국 유선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UNITE 자회사를 통해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가 유일한 주주이며 현재 회사를 민영화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몰도바 정부는 Moldtelecom의 전략적 51% 지분을 1997년 그리스의 OTE(Hellenic Telecommunications Organization)에, 그리고 2002년 11월에는 러시아의 MGTS(Moscow City Telephone Networks)에 낮은 입찰가로 판매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으나, 2012년 3월 민영화 예정 회사 목록에서 Moldtelecom을 제외시킨 바 있다.

Moldtelecom의 주요 전략은 고속 및 대용량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활용하기 위한 FTTx 네트워크의 확장이다. 이는 유선, 이동전화 및 IPTV 서비스를 보완하여 기업 및 소비자 시장 부문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Moldtelecom의 SWOT 분석 결과는 아래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9〉 Moldtelecom SWOT 분석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몰도바의 기존 유선 사업자 : 모든 유선 회선의 90%와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 모바일 비즈니스 브랜드 UNITE를 통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0년 5월에 3G 시작 • 광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IPTV 서비스를 위한 강한 수요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기업으로 잠재적 투자 재원이 제한됨 • 3G 서비스로 시장에 마지막으로 출시
기회(O)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인 시장을 나타내는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증가; 여전히 CDMA 고정 무선 연결에 대한 요구가 있음 • 3G 모바일 서비스의 출시는 모바일 비즈니스가 시장 경쟁자인 Orange와 Moldcell과 더 동등한 기반을 갖도록 함 • 2010년에 HDTV가 출시되면서 IPTV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및 IP 대체로 인한 불안한 유선 음성 및 광대역 시장 • 모바일 비즈니스는 두 경쟁 업체와의 경쟁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료: Fitch Solution(2020)

아래 〈표 10〉과 같이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이동통신 시장 수익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모바일 매출은 처음으로 전년 대비 4.4%가 감소하였고, 그 이후로 수익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3%, 2018년에는 3.9%, 2019년 2분기에는 3.7%로 하락하였고, 해당분기에 Moldtelecom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9.3% 증가했으나 다른 두 통신사업자인 Moldcell과 Orange Moldova는 매출이 각각 6.6%, 3.3% 감소하였다. Orange Moldova는 매출의 63.7%, Moldcell은 30.5%, Moldtelecom은 5.8%를 차지하고 있다.

〈표 10〉 통신사업자별 이동통신 시장 수익 변화 (2009-2019) 추이

연도	Orange	Moldcell	Moldtelecom	합계
	수익 (MDL* million)			
2009	2,162.7	696.9	97.9	2,957.5
2010	2,443.2	825.4	90.9	3,359.6
2011	2,443.9	884.1	106.9	3,434.9
2012	2,481.5	896.1	122.0	3,399.6
2013	2,467.9	924.3	132.6	3,524.9
2014	2,401.5	975.5	122.9	3,499.9
2015	2,385.3	1,078.9	136.8	3,600.9
2016	2,255.5	1,040.4	146.0	3,441.9
2017	2,159.4	1,018.1	160.1	3,337.6
2018	2,041.2	991.7	173.7	3,206.6
2019 (H1)	970.7	467.2	88.2	1,526.1

*MDL: 몰도바 화폐단위(몰도바 레우, MDL: Moldovan leu)

자료: Budde Comm(2019)

3.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몰도바는 ICT 부문 발전을 위한 디지털 몰도바 등의 정책을 2013년부터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몰도바의 중장기 국가전략인 “몰도바 2020(Moldova 2020)”과 함께 “디지털 몰도바 2020(Digital Moldova 2020)”와 같은 ICT 정책 및 전략들이 2020년인 금년도 마무리됨에 따라, 2021년부터 새로운 전략이 구축 및 이행될 예정이며, 풍부하지 않은 자연자원 및 탈농업화 정책 등으로 ICT와 같은 비전통적 부문의 발전이 고용창출 및 국가성장 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 Orange에 치중된 몰도바 이동통신 시장 구조 재조정을 위한 몰도바 정부의 시장경쟁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몰도바는 우리나라 신북방국가정책 14개 대상국 중 하나이며, 다른 신북방국가 진출로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간접적으로 EU와의 더욱 공고한 외교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국가이다.

KOICA 통계를 살펴보면 2000-2018년까지 몰도바에 총 2,240,073 달러(한화 약 25 억원) 규모의 ODA 프로젝트가 이행되었으며, 이는 외교부의 중점 협력국에 비해 적은 규모이나 이 중 ICT부문의 ODA는 꽤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2012년 8월 행안부 지원으로 정보접근센터가 개설된 바 있다. 또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과기부 ICT ODA 일환으로 정보보안분야 전문가 파견 및 정책자문이 수행된 바 있으며 2020년 현재 주파수관리 및 가격산정을 주제로 정책자문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ICT를 향후 주요 국가성장 및 혁신의 주요 원동력으로 추진하기 위한 몰도바 정부의 의지와 최근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양국간의 ICT 협력에 기반하여 한-몰도바 ICT 부문의 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 『KOTRA 국가정보: 몰도바』.
-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2020), 『몰도바 최근 특기사항 및 개황』.
- Budde Comm(2019). “Telecoms, Mobile and Broadband-Statistics and Analyses.”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
- Emerging Europe(2019.02.04.). “Moldova’s ICT sector is primed for further growth” (<https://emerging-europe.com/intelligence/moldovas-ict-sector-is-primed-for-further-growth/>).
- Fitch Solutions(2020). “Moldova Telecommunications Report: Includes 10-year forecasts to 2028.” Fitch Solutions Group Ltd.
- ITU(2017).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for 2017”.
- World Bank(2019). “Doing Business 2020”.
- World Economic Forum(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 박지원(2020), “몰도바와의 협력 비전과 전략”,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북방정책 국가별 비전·전략 전문가 세미나》, 2020.05.15.
- 몰도바 경제인프라부(MEI) 홈페이지: <http://mei.gov.md/en>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ukbang.go.kr/bukbang/>
- KOICA 통계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http://stat.koica.go.kr/>
- Lonely Planet 홈페이지: <https://www.lonelyplanet.com/>